

# KB STARS Magazines

제 8호

1라운드 관전 후기

신인 선수 인터뷰

꼬마 소녀의 꿈

매거진 이벤트 당첨자 발표

## [ 2R KB경기안내 ]

11/09(월) vs 대한항공\_구미  
11/12(목) vs OK저축은행\_안산  
11/15(일) vs 삼성화재\_대전  
11/17(화) vs 현대캐피탈\_천안  
11/21(토) vs 한국전력\_구미  
11/24(화) vs 우리카드\_서울



## KB손해보험스타즈배구단

# 1라운드 REVIEW



## 마틴

## 이 살아야 KB가 산다



KB 스타즈의 승리의 열쇠는 마틴이 쥐고 있다. 고비의 순간 외국인 용병으로서 해결사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서브 리시브가 되지 않은 상황의 오픈공격이나 20점 이후의 상황에서 확실한 마침표를 찍어주어야 한다. 사실 1라운드를 치르는 동안 100%의 경기력이 나오지 않다 보니 김요한의 점유율이 반등했다. 6라운드까지 장기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특정 선수의 점유율이 지나치게 많아지게 되면 상대와의 체력 싸움에서도 밀려 쉽게 무너질 염려가 있다. 무엇보다도 마틴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감이다. 과거 대한항공시절 강력한 서브와 빠른 스윙에서 나오는 블로킹을 이용한 공격은 일품이었다. 하지만 팀이 패배하는 경기가 많아지자 소극적으로 플레이하는 경우가 늘었다. V리그에서 외국인 선수는 그 해 농사 결과를 판가름하는 척도가 된다. KB가 살기 위해서는 마틴이 살아야 한다.



## 속공

## 이 살아야 KB가 산다



속공을 이용한 시간차나 킥오픈 공격 등 패턴플레이가 나오려면 상대방 블로커들을 속여야 한다. 빈번한 속공 득점이 나와야만 상대 블로커는 속공 가로막기를 시도하고 이어진 패턴플레이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 KB 스타즈의 속공 시도는 82개, 1위 OK저축은행(171개)과는 2배가 넘는다. 시몬의 속공 가담이 많아 예외적이라고 해도 2위부터 5위까지 평균값 97.2개와는 15개차이다. 성공률 또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48.87%를 기록하며 6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5위 대한항공과도 10% 차이가 있다. 단순히 속공 성공률만이 문제가 아니다. 속공 성공률이 낮아지면 이에 부담을 느낀 세터는 속공을 사용하지 않아 속공이후 공격시도에 2명 이상의 블로커가 가담해 공격성공이 어려워진다. 결국 전체 공격성공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현용, 이수황, 김민규, 김은우의 속공이 살아야 KB가 산다.



## 집중력

## 이 살아야 KB가 산다



최근 2경기 1세트를 먼저 따내고도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 대한항공과의 경기의 1세트 결과는 25:18. 1세트만 놓고 본다면 3:0 완벽한 승리를 예측할 수 있었다. 삼성화재와의 경기도 마찬가지였다. 듀스 접전 끝에 29:27 승리, 팬들은 끈질긴 배구를 기대했으나 결과는 1:3 역전패였다. 지나간 세트를 10점 차로 이겼던 찰나에 현재 세트를 따내야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배구이다.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2라운드, 1라운드의 지나간 경기는 되도록 빨리 잊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승리를 거뒀던 우리카드나 역전패를 안겼던 다른 팀들과의 경기에서 승패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집중력을 발휘해 승리하기를 기대한다. 집중력이 살아야 KB가 산다.



# 그들이 알고싶다 특집!

## 미리보는 신인선수 인터뷰



**NO 12. 황두연**

- Q1. 인하대 선배들이 많다. 챙겨주는게 있는지?  
: 대학교 선배님들이랑은 1학년때 같이 생활했었기 때문에 편하고 부탁도 쉽게 말할 수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 Q2. 자신만의 매력포인트?  
: 내적으로는 진지함? 외적으로 매력포인트라고 하면 왼쪽 볼에 있는 점이요
- Q3. KB스타즈 안에서 롤모델은?  
: (권)영민이형이요.  
훈련할 때 나이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후배들보다 열심히 운동하시는 모습에서 '역시 베테랑이구나' 느꼈어요.



**NO 20. 김영민**

- Q1. 경기대 주장에서 KB의 막내가 되었다. 어떻게 고참선수들한테 어필하고 싶은지?  
: 대학때는 고참이여서 애들한테 장난도 치고 했지만 지금은 신인인 만큼 눈치를 살피요. 애교가 없는 편인데 귀여운 막내가 되고 싶어요.
- Q2. 드래프트 지명 당시, 팬들의 환호와 눈물이 화제가 되었는데, 인기의 비결?  
: 경기대에 서포터즈가 생기면서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을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 Q3. 1년뒤 자신에게 한마디.  
: "너가 여기서 버틸수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랑해 영민아"



**NO 2. 김은우**

- Q1. 하장훈 매니저님과 같은 대학교 출신인데, 입단 당시 어떤 조언을 해줬는지?  
: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매니저님과 대학시절 장난도 많이 치고 재밌게 운동하던 사이예요. 아무래도 여기는 프로이다 보니까 진지한 모습을 보이라고 하셨어요.
- Q2. 배구에서 가장 자신있는 부분?  
: 블로킹이죠. 닥고 싶은 롤모델은 시몬선수예요. 코트안에서 만난다면 젊은 패기로 도전해야죠.
- Q3. 자신에게 한마디.  
: "은우야, 형들한테 재롱도 많이 부리고 예뻐받자. 그리고 꼭 살아남자!"



**NO 15. 백계중**

- Q1. 대학 시절 디그 1위, 자신만의 비결?  
: 프로경기를 보면서 배우기도 하고, 경기에서 다른 선수들보다 더 빨리 움직이려고 하는 게 비결아닌 비결이에요.
- Q2. 김민규 선수가 룸메이트인데, 1년선배로서 숙소생활 적응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 사소한 것까지 챙겨주시고 나이차가 많이 나지 않다보니 편하게 대해주세요.
- Q3. 2015-2016 시즌 각오.  
: 저희 팀이 정규리그에서 우승을 못해봤는데 이번시즌에는 우승에 도전할 수 있도록 팀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더많은 인터뷰 질문과 신인선수들의 귀여운 개인기는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 꼬마 소녀의 간절한 바람



9살 지윤의 간절한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0월 22일 한국전력과 홈경기에서 KB스타즈는 1세트부터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 채 세트를 마무리해야 했다. 꼬마소녀는 더욱 간절히 KB스타즈의 승리를 위해 소리쳤다. 소녀의 간절한 마음이 들렸을까?

3세트는 점수를 주고 받는 백중세가 이어졌다. 하지만 3세트 종반 패색이 짙어지기 시작했다. 지윤이의 얼굴에도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자리에 앉을 여유도 없이 힘차게 KB스타즈의 승리를 외쳤다. 결과는 3-0패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실망하지도 않았다. 인사를 건네는 선수단에게 뜨거운 격려에 박수를 전하며 소녀도 경기장을 떠났다.

KB스타즈 선수 중 누가 가장 좋으냐는 질문에 수줍게 “김요한 선수가 제일 좋아요.”라고 대답하는 모습은 영락없는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였다. 지윤이는 작년부터 KB스타즈 배구단의 서포터즈로 활동했고, “올해도 역시 홈경기는 한 경기도 빠지지 않고 찾아올 것”이고 “김요한 선수가 잘해서 꼭 경기를 이겨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꼬마 소녀의 간절한 바람이 선수단에게 전해져 승리로 이어지길 바란다.



## 매거진 이벤트 당첨자 발표

1라운드 기간 동안 기억에 남는 경기, KB스타즈와 관련된 추억 등 팬들에게 사연 신청을 받았습니!



**김재성 님** #구미에 사는 15살 소년팬



###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

- 2014-15 시즌 10월 25일 우리카드와의 경기. 처음 배구장에 와서 KB스타즈가 3-2로 역전승을 하는 것을 보고 배구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 #KB스타즈에 응원 한 마디

- 아쉬운 성적으로 1라운드를 마무리 했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오고 역경 속에 피는 꽃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잘 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고 애정을 가지고 응원하겠습니다. KB스타즈 승리를 위해 파이팅!

**이벤트에 당첨되신 '김재성 님'께는 KB스타즈 매거진 사연 게시, 선수와 포토 타임, 레플리카&싸인볼을 상품으로 드리겠습니다!**